



가톨릭마산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4년 9월 29일
제2637호



주님의 줄을 굳게 잡고(몽생미셀수도원, 프랑스)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민수 11,25-29
- 화 답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제 2 독 서 야고 5,1-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복 음 마르 9,38-43,45,47-48
-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하느님의 일: 생명을 주는 것



이진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산청본당 주임

“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요한과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이와 예언을 하는 열댓과 매댓을,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말려야 하고’ ‘막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자리를 이들이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이를 “막지 마라.”라고 하시며, 그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모세는 여기에 더해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위하고 그분의 생각과 말씀에 따라 다른 이들이 ‘주님께서 보시니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길 바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말리고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세상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인 오늘! 우리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을 비롯한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교구 여성협의회 제11회 여성의 날



교구장 서리 사목교서에 따라 ‘일치와 나눔’ 실천 방안으로 교구 내 이주민 돕기에 주력하고 바자회 기금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고자 마련된 이번 ‘여성의 날’ 행사는 9월 12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교구 내 70여개의 본당, 160여명이 함께했다.

1부와 2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이주사목 담당 윤종두 사도요한 신부의 특강으로 교구 내 이주민의 실태와 그들 가정의 상황들,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다루었고, 그를 통해 우리 모두는 성서적으로 이주민 이었고 교회가 복음적으로 다가가야 함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2부는 마산교구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팀인 <오이코스>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한 가족’이라는 뜻으로 10년 넘게 호흡을 맞춘 오이코스 청년들 덕분에 영적·육적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주용민 리노 사무처장 신부의 미사와 강론으로 마무리하며 행사를 마쳤다.



진짜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의순 요한보스코 시인/ 가톨릭문인회

어느 날 저녁 답에 동료 넷이 동네 어귀에 있는 밥집에서 담소(談笑)중에 K형제의 신앙적 지론(持論)이 귀를 솔깃하게 한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방귀도 끼고 살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마와 맞서서 오직 성령으로 이겨냈다고, 역설하였다. 문득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절실한 믿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산천이 몇 번이나 변했을까? 처음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이 더 솔직하리라.

곧장 귀가하여 우리 성당 수녀님께 막막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예수님의 실존을 간단히 추려서 말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스스로 정리된 답이 없었다. 실지로 내 방에 걸어놓은 주교님의 성경필사 축복장을 쳐다보며, 참으로 쓸쓸하고 공허한 마음을 어찌하랴. 아무튼 수녀님의 권유로 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마르코 복음의 첫 머리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례자 요한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1.4) 하였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1.8).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1.12-13). “예수님은 성령으로 온갖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마귀를 쫓아 내셨다”(1.34).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9.42-48). 이혼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10-9). 이처럼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16.1-8)과 승천(16.19)에 이르기까지, 마음 짙이는 성구를 대강 추려보았다. 다시 구약의 10계명을 유념해 본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여야(탈출 20,12; 신명5,16) 사람을 죽이지 마라(탈출 20,13; 신명 5,17) 도둑질을 하지마라(탈출 20,15; 신명 5,19) 등 인간이 만물의 영장(靈長)으로서 근본을 적고 있다. 부언하여 성경은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원후 100년 사이 약1,000년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된 논리로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면, 신앙인의 긍지가 아닌가.

한편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21세기 물질문명의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경쟁사회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대인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인간의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활기를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의 삶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랴. 다만 내 영혼에 감사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을 즐겁게 살고, 지금 가진 기쁨을 만끽하리라. 그리하여 이승이 끝나는 날, 하느님께 가서 세상은 아름다웠다고, 진정 살만한 곳이었다고 내 말하리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주민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인권 유린, 기후 변화, 빈곤 등 다양한 문제와 위기로 '이주'가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주 노동자, 유학생,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며 체류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마주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가 예견되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이주민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나날이 늘어 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사회적 여론에는 환영과 우려의 다소 상반된 시각이 공존합니다.

'이주 현상'에 대한 대중의 혼재된 인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주로 경제, 정치, 그리고 대중 논리 안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는 그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의 인식이 들어서는 것을 우려합니다. 선주민들의 이익과 권리만이 우선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논리 안에서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먼저,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이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 곧 교회의 고유한 순례 본성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교회현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본성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4항 참조).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체험을 통하여 더욱 심화된 복음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 체험을 바탕으로 심화된 복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선포를 통하여 이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며, 선주민들에게는 이주민을 향한 이해와 형제애를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화와 선교는 이주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미 목적지에 이르러 울타리를 쌓고 정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는 순례(이주) 공동체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 안에서 교회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떠남'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 안에서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에서부터 언제든지 교회의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관습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력은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특성입니다. 교회는 인종과 민족, 문화, 언어 차이를 넘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만남은 특별히 더욱 그러합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35절에 나오는 "나그네"는 곧 '이주민과 난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존중과 환대 그리고 보호는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국적이 서로 다른 이민자들의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도 기꺼이 봉사할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이기적 문화를 이겨 내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주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함께 노력합니다.

전 세계 지역 교회가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하는 이때에, 이주민들과 함께 걸어가려는 교회의 노력이 '당신 백성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징표로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9월 29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마산교구 이주사목에 관하여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주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신다!")을 맞아, 이주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 교구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날은 1914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제정되어, 이주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영적·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매년 기념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부서개편을 통해 2016년 '온전한 인간발전촉진부' 내에 이주사목국을 설치해 이주민 사목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다인종 사회 진입과 마산교구의 상황

OECD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규정됩니다. 2024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약 260만 명이 이주민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가 관할하는 경남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진해신항 건설과 사천 항공우주청 설립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기술 인력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역 내 이주민 수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교구에는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등지에서 온 약 1,900여 명의 이주민 신자들이 창원, 함안, 칠원, 진주, 통영, 거제 등지에서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영적돌봄 이외에, 경남전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산교구가 직면한 현실적 도전 과제

- 1. 결혼이주여성:** 상당수가 1900년대 말 건강하지 않은 국제결혼정보업체와 통일교 및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면서, 많은 분이 언어, 문화의 장벽으로 정서적·육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필리핀 출신 가톨릭 여성들 중 상당수는 통일교 및 타 개신교회로 이탈한 상태입니다.
- 2. 노동자:** 과도한 노동 강도와 위험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권 보호가 절실합니다. 특히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은 가톨릭 신자로, 이들의 인권과 신앙 생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3. 유학생:**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탈하여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학생의 옷을 입은 노동자로 법적 보호 없이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4. 이주배경자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교육과 양육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신적·심리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5. 각국 가톨릭 공동체를 위한 영적돌봄:** 이주민 신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성전과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민족 본당 공동체의 건립과 신앙쇄신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사제를 포함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서리 동정
남성동성당 엘리베이터 승강식
일시: 10월 1일(화) 11:00
장소: 남성동성당

수녀연합회 연수 강의와 미사
일시: 10월 2일(수) 09: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거제지구 올드레아
일시: 10월 5일(토) 09:30
장소: 복신동성당

교구 성령쇄신대회 미사
일시: 10월 5일(토) 15:30
장소: 창원문성대 체육관

사람동분당 견진성사
일시: 10월 6일(주일) 11:00
장소: 사람동성당

교구/본당

부제반 성지순례
일시: 10월 4일(금)~14일(월)

신앙대학
일시: 10월 5일(토)~6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수녀연합회 총회 및 연수
일시: 9월 30일(월)~10월 2일(수)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공소

민족화해위원회 평화 순례
일시: 10월 2일(수)~10월 3일(목)
장소: 파주일대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9월 수어미사 안내
일시: 10월 6일(주일) 10:3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7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일시: 10월 12일(토) 10:00~16:00
14:00 미사
장소: 천진암 성지(수원교구)
미사: 이성효 주교, 이한택 주교, 사제단
문의: 010-2621-6034

창원 지구 청년 연합회 성지순례
일시: 10월 19일(토) 08:30~17:30
장소: 거제 윤봉문 성지 일대
대상: 창원 지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비: 25,000원
신청: 10월 6일까지 본당 청년회장을 통해 명단 제출 (청년회장이 없는 본당은 QR코드 확인 후 공문을 통해 명단 제출)
문의: 청년 연합회장 010-3221-1575

김연준 신부 특강
주제: “우리는 희망으로 삽니다.”
일시: 10월28일(월) 12:00~16:30
미사 15:30
장소: 월영성당(마산교구)
문의: 010-2621-6034

기 타

성소슬숯 무료 치유대(對) 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간: 매월 둘째주 금~일요일(2박 3일)
10월 18일~20일/11월 8일~10일

청년 무료 치유대(對)피정-회복탄력성
12월 13일(수) 18:00~15일(금)
문의: 010-3209-3955(문자접수)

2024 한티가는길 행사
일시: 10월 26일(토) 09:00~16:00
인원: 2,000명 선착순[10,000원, 중식포함]
신청: hantigil.hanti.or.kr
주최: (사)한티(한티순교성지)

2024 마산교구 성령대회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다”
(목시 21.5)

총합장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 마산주교 교구장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총합장사 신상현 야고보 수사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 주겠다 (목시 21.8)

2024. 10. 5(토) 09:00~17:00
창원문성대학교 강당

강의1 10:30~12:00 김재덕 베드로 신부
강의2 13:30~15:00 신상현 야고보 수사
미사 15:40~17:00 미사: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사제단
준비물: 미사 준비, 점심 각자 준비
연락처: (교구) 010 5247 9900 (인부) 010 3846 1980 (가제) 010 6700 8117

천주교 마산교구 성령쇄신동사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3차: 11월 15일(토)15:00~16일(일)13:00-김탁환 작가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9만원, 대구은행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중앙동본당 사무장 모집

대상: 컴퓨터 한글 및 엑셀 사용 가능한 자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접수: 10월 6일(주일)까지, 중앙동본당
* 면접은 추후 개별 통보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055-547-7183(중앙동본당 사무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 구	9월 30일(월) 19:00	남성동성당	어려움, 극복, 믿음과 결단	신상옥 안드레아 선교사 (인천교구중(동성당) 선교사)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진주지구	9월 30일(월) 19:00	신안동성당(소성당)	영적침체를 회복하는 길	임성진 요한 신부	임성진 요한 신부	010-3846-198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www.cttour.org

11/4~11/15 피정 성모발현지 460만원
11/15~11/26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50만원
11/26~12/7 발칸반도(메주교래) 395만원
12/2~12/12 동부유럽 4개국 385만원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 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하동본당 상아탑Pr. 2500차 기념주회

하동본당(주임: 이수호 다미아노 신부) 평화의 모후 꾸리아(단장: 백영희 라파엘라) 소속 상아탑Pr.(단장: 이주자 크리스티아나)이 9월 1일(주일) 2,500차 기념주회를 본당강당에서 가졌다.

상아탑Pr.은 1975년 7월 15일 창단되어 49년이 넘게 성모님의 자랑스런 군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주회와 함께 본당 9개 브레시디움 간부들과 지도수녀, 신부님의 축하를 받으며 다과회를 준비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산지구 청년연합회 하계 MT

마산지구 청년연합회(담당: 김현우 가브리엘 신부)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언제나 그 분 앞에서 뛰놀았다”(잠언 8,30) 라는 주제로 거제 학동 공소에서 청년 연합회 하계 MT를 실시하였다. 마산지구 청년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MT는 특히 청년 연합회 간부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산지구 청년들과 친교와 단합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가음동본당 재건축 신축 기공미사 및 축복식 개최

가음동본당 재건축 신축 기공미사와 축복식이 9월 1일 거행되었다. 1984년 첫 성전, 첫삽을 기억하며 400여명의 본당 신자들은 덩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기공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정성이 깃든 손길들이 모여 더욱 하나되는 감동을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화동본당 구세주의 어머니Pr. 2,000차 기념주회

경화동본당(주임: 주효상 알렉산델 신부) 원죄없으신 성모 꾸리아 직속 구세주의 어머니Pr.(단장: 박명숙 가브리엘라)은 9월 10일(화) 오후 8시 경화동 본당 강당에서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주임신부는 어려운 여건들을 잘 견뎌내었기에 2,000차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전임 꾸리아 간부들과 경화공동체의 모든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모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나누었다.



경남 동티모르 노동자센터 개소식

2024년 9월 7일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통영센터내에 ‘경남 동티모르 노동자센터’ 개소식이 주한 동티모르 그레고리오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마산교구를 대표해 사회복지시설협의회 회장 황인균 요셉신부와



교구내 동티모르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거룩한 말씀의 수도회 Martin Quido(마틴 귀도)신부도 참석하여 주한 동티모르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내주한동티모르 노동자들은 약 5천 8백여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대다수 수산/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산교구내에는 통영, 거제, 고성, 진영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해, 진동 등 해안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다. 교구 이주사목의 형편상 통영 태평동성당(주임: 전병이 요아킴 신부)의 도움으로 한 달에 한 번밖에 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센터의 개소로 본인들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은 특별한 의미라고 창원이주민센터장은 소회를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중 가장 적은 숫자를 파견하고 있는 동티모르는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외된 이들중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견고자 하는 교회의 마음이 이 작은 행위를 통해 드러났으면 한다.”

동티모르 이주 노동자 축제 ‘아미쿠스’ 개최



우리나라에 있는 동티모르 이주노동자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인 ‘Amicus(아미쿠스)’가 추석 연휴에 열렸다. 9일 한국천주교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18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TOVIS 콘도미니엄에서 ‘2024년 재한 동티모르 형제 전체 모임’이 열렸다.

이 행사는 주한 동티모르 대사관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이주사목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천주교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티모르 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동티모르

인사로는 노동부 차관급인 ‘직업훈련 및 고용 국가사무처’ 국장외 7명이 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한국에 있는 동티모르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노동권리·의료·행정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티모르와 한국 사회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9일부터 11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티모르를 방문하면서 소외 국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 행사는 교황의 뜻에도 부합하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행보라는 평이다.

행사 기간에는 달리 대주교인 비르지틸리오 추기경이 집전하는 유아 세례와 세미나, 주한 동티모르 대사관 노동 참사관이 주관하는 동티모르 노동자의 노동권 및 현실 특강,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등이 진행되었다.

행사를 기획한 마산교구 창원이주민센터장 윤종두 신부는 “이 행사를 통해 동티모르 노동자들의 인권 신장과 동티모르에 대한 인식 전환,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건강하게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